

# 낙농자조금사업은 우리낙농가 전체의 승리이다



황 정 환

낙농자조금운영위원(건국유업)

이제 국내에서도 낙농업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이 자조금조성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이 제도의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운영을 위해 자조금조성을 법제화하여 새천년에도 지속사업으로 추진해 낙농산업의 발전을 마련하고자 하니 이제는 “무임승차”라는 불명예를 떨쳐버리고 다시는 우리 앞에 악순환이 지속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자세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97년도말 우리결을 찾아와 매섭게도 우리의 어깨를 바짝 움추리게 만들었던 IMF로 인하여 국민들의 식생활 패턴을 바꿔 우유의 소비마저 저하되어 생산자 단체를 중심으로 농민들이 힘을 모아 우리 우유의 우수성을 홍보한 관계로 이제는 어느 유업체를 보더라도 정상적인 노선을 걷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다.

이는 우리 낙농가 전체의 승리라 믿고 싶은 마음이며, 이제 다시는 IMF라는 국가적 치욕을 당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허리끈을 동여매고 매진하고 있는 현 상황에 낙농자조금 실시 원년을 보내며 그 의미를 되새겨 보고자 한다.

## 1. 낙농자조금 구성 배경 및 의의

IMF영향으로 우유소비가 둔화된 반면 사육호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생산량 증가에 따른 원유수급 불균형이라는 시련기를 맞게되어, 도태장려금 명목으로 저능력우에 대한 도태가 이루어 졌으며, 송아지값 폭락, 착유소 및 육성우가격 폭락 등 전반적인 낙농인의 참담한 시련기였다.

이와같은 악순환에 종지부를 찍기위해 정부에서는 1998년도 7월 우유 판매값을 약 7%정도 가격을 인하하여 판매활성화를 기하였으며 당시 원유값 역시 약 5% 인하되는 것으로 자구책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나, 우리 생산자단체에서 자조금 명목으로 5원/kg을 조성하는 조건으로 유보시켰던 것이다.

즉, 자조금을 조성하고 저능력우에 대한 과감한 도태 및 생

산에 국한하지 않고 내가 생산한 우유를 내가 판매한다는 각오로 우유홍보를 목적으로 가두캠페인 등 우유소비에 적극 동참하는 것을 근본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상기와 같은 목적으로 낙농자조금을 조성하여 1999년도에 약 25억원의 규모로 사업을 실시하여 우유소비에 매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 2. 낙농자조금 사업 내용

지난 7월 1일부터 실시된 자조금 사업은 우유로 불우 이웃을 돕는다는 감동적인 메시지로 성황리에 진행되어 「사랑의 우유나누기 운동」을 SBS TV, MBC라디오, 신문, 잡지 등에 광고, 스티커 및 포스터제작 및 배포로 공익캠페인 차원에서 실시하였다.



초창기에는 24억원의 예산으로 실시하였으나 우리 낙농가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25억원으로 사업비용이 늘어났으며, 우유소비확대도 이를 통해 확고히 증가 추세를 나타내었다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사랑의 우유나누기 운동」성금으로는 약 3억원의 기금이 모여져 불우이웃을 돕는데 전액 우유로 보내졌다.

이제 국내에서도 낙농업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이 자조금조성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외국에서도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자조금을 조성하여 우유의 우수성을 홍보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좀더 적극적인 차원에서의 동참을 요청하며 이 제도의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운영을 위해 자조금조성을 법제화하여 새천년에도 지속사업으로 추진해 낙농산업의 발전을 마

련하고자 하니 이제는 “무임승차”라는 불명예를 떨쳐버리고 다시는 우리 앞에 악순환이 지속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자세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 3. 2000년도 낙농자조금 사업 확정

금년도 10월말 개최된 자조금 운영위원회에서는 소비자 기호도의 변화에 적극 부응하고 효율적인 소비추진을 목적으로 2000년도 낙농자조금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간 1원/kg을 집유단계에서 거출하여 20억원을 조성하고 정부로부터 10억원을 지원받아 30억원의 사업규모를 확정지었다.

여기에서 유업체가 낙농가가 부담한 20억원만큼 동참하게 될 경우에는 50억원의 사업규모가 이루어져 우유홍보 및 낙농산업 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사업이 될 전망이다. 따라서, 운영위원겸

추진위원인 본인도 다시는 우리 낙농가들에게 쓰라린 상처를 남겨주지 않기 위해 부단히 노력 매진하고자 한다.

과거의 상처가 현실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이 되듯이 이제 막 기틀을 닦아 장을 내리려는 낙농자조금 구축에 여러 낙농가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하는 바이다.

우리 후세의 건강을 책임진 역사적 소명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우리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참된 용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새천년에도 낙농부국의 꿈을 키우기 위해서는 내가 생산한 우유는 내가 소비한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고 낙농업이 우리 후세에서는 더욱 참된 직업이 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합시다. ☺

(필자연락처 : 02-444-0880)

